

정부, 검찰개혁 최대 쟁점 ‘보완수사권’ 검토 착수

3-4월 의견수렴...토론회·여론조사 시행 대통령 언급 ‘예외적 보완수사권’ 속의 與 “장의투쟁 국힘, 극우에 꼬리 살랑”

검찰개혁의 첫 번째 숙제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을 끝마친 정부가 검찰개혁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3일 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형사소송법 관련 쟁점 검토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형사사법 체계 개선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을 가장 두텁게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집중 공론화 기간을 거쳐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논의의 핵심은 검찰의 후신이 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것인지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무너지고 자의적 권한 행사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의견과, 이마저 없다면 수사기관의 통제가 어려워지고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부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상황을 예시하며 “검찰 개혁의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등 쟁점에 대해 3-4월 중 의견 수렴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11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 공개토론회, 16일 추진단 주관 종합토론회 등이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 추진단은 “공개토론회·자문위원회·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전문가·범죄피해자·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

하겠다”면서 “주요 계기마다 논의의 과정과 결과 등을 공개해 쟁점의 검토 상황을 충분히 공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에 대해서는 “10월2일 신설 기관의 차질 없는 출범 준비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하위법령 정비와 조직·인력·청사 등 행정 사항에도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무회의를 ‘사법 3법’ 처리에 반발해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한 데 대해 “민심은 아스팔트가 아니라 민생 현장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비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익을 내팽개치고 국회를 마비시킨 채 국우의 품으로 달려가는 야당은 더는 공당이라 불릴 자격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과거의 내란과 폭거에 맞서 단 한 번이라도 광장에 나와본 적 있는가”며 “사법 독립과 헌정 수호라는 거창한 구호는 어울리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윤 어게인’을 외치는 아스팔트 극우 세력에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다며 꼬리를 살랑거리려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김진수 기자



김종리, 국무회의의 주제 김민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태 도의원 “나주시장 출마”

‘나주 인생 책임제’ 추진 등 제시

전남도의회 이재태 의원이 3일 나주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날 나주 빛가람동에 위치한 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 시 단위 최하위 수준의 재정 자립도와 원도심 공동화 등 구조적 위기를 타개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출사표를 던졌다.

이날 이 의원은 국회와 도의회, 시 행정을 두루 거친 융합형 리더십을 내세우며 시민의 실질적 삶을 보장할 ‘3대 시민 특권’을 약속했다.

에너지 수익을 시민에게 환원하는 에너지 연



금과 민생·생애 연금을 도입해 튼튼한 재정 주권을 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생애 맞춤형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나주 인생 책임제’ 추진과 원도심 뉴트로 프로젝트, 24시간 돌봄 시스템·아동 인프라 확충, 에너지 특화 인재 양성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시장 개인의 권위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가 시정의 기준이 돼야 하고, 화려한 말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바꾸는 결과로 증명하겠다”며 “책임이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시장이 돼 시민과 함께 나주의 새로운 봄을 열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나주=정준환 기자

조국 “호남에선 민주당과 자유롭게 경쟁”

자신 출마 관련 “4월초 거취 결정”

“자력갱생 모토로 3개월 달릴 생각”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6·3 지방선거와 관련 “국민의힘이 당선될 가능성이 0으로 수렴되는 호남은 자유롭게 경쟁해도 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3일 ‘김여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 “선거연대를 해서 신뢰와 존중이 쌓여야 통합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영남은 민주당과 혁신당이 힘을 합쳐야 하고 유리한 쪽으로 몰아줘야 한다”며 “중앙당에서 (연대를) 조율하기 쉽지 않다.

비호남 지역은 시·도당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재량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6·3 지방선거든 재보선이든 출마 의사를 과거에 밝힌 것과 관련해 “(출마는) 분명하다”며 “저의 거취(선거)는 4월 초순 정도 결정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에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해서도 안된다”며 “제가 어디를 나간다고 결정하면 민주당이 가장 높은 수준의 정무적 판단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제가 어디로 가든 간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겠다고 선택하면 방법이 없고, 경쟁해서 이겨야 한다”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화성에서 경쟁해 자력

당선했는데, (저도) 그런 일이 생기면 스스로 당선돼야 발언권이 생긴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서로 각자의 길을 가고 맨 마지막 순간에 일정한 연대나 합의가 이뤄질 수 있지만 그것을 기대하고 갈 수는 없다”며 “오로지 자력갱생, 자강불식 모토로 3개월을 달릴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전 합당을 제안했다 사실상 반복한 것과 관련, 조 대표는 “합당 국면 때문에 3주를 까먹었다”며 “전국에 후보들을 발굴하고 배치하는 것이 3주간 중단됐는데, 당 인재임용위원장에서 지방선거 후보를 배치하는 작업을 하고 제가 선택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나광국 도의원, 무안군수 출마 선언

“서남권 스마트 미래산업 거점 비상”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이 3일 무안군수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나 의원은 이날 무안국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은 시대의 꿈무늬를 쫓는 수동적 행정이 아니라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직접 설계하고 궤를 돌리려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무안군수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어 그는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소모적 논리에 갇히지 않고, 무안이 서남권 스마트 미래 산업의 거점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총출동 교통망 확충과 실질적인 경제적 실익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밀실 행정’을 끊어내기 위한 군수 간부회의 전면 공개와 관사·출퇴근 차량 미사용 등을 약속하며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무안 미래 비전으로 ▲통합특별시 행정 중심 도시 ▲주거·광역 교통 요충지 ▲RE100 산업단지 유치 등을 제시했다.

나 의원은 “통합의 시대에는 설명할 수 있고 협상할 수 있으며, 책임질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며 “군민과 함께 무안의 몫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 알로에